

일본어 형용사와 형용동사의 유형론적 함의 :한국어 형용사 어근 등의 품사 분류와 관련하여*

목정수
(서울시립대)

Mok, Jung-Soo. 2008. Typological Implications of ‘adjectival verbs’ and ‘adjectives’ in Japanese: with special reference to ‘adjectival roots’ in Korean. *Linguistic Research* 25(3), 23-37.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adjectival verb’(=형용동사) in Japanese and the ‘adjectival root’(=어근 / 관형명사) in Korean and to make a conclusion that they have to be classified in the same category on the basis of the common syntactico-semantic features. This study is motivated from observing tha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Korean has one type of adjective class unlike Japanese which has two types of adjective class, *inflected adjectives* (=verb-like adjectives) and *uninflected adjectives* (=noun-like adjectives) (Backhouse (2004)). Keeping in mind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to describe a given language in terms of consistent reference points in order to make language typology more perfect, I try to describe the adjective-related phenomena in Japanese and Korean. Also I suggest a new possibility of reorganizing the adjectives in Korean so that we can find new noun-like adjectives besides verb-like adjectives. Consequently, the lexemes traditionally called ‘adnouns / bound roots, etc.’ in Korean can be recognized or reorganized as simple ‘(nominal) adjectives’, and I can consider the so-called ‘adjectival verbs’ in Japanese as ‘nominal adjectives’. (**University of Seoul**)

Keywords adjective, adjectival verb, Korean, Japanese, root, typology

* 본고는 2004년 서울대언어연구소 / 세종전자사전개발연구단 공동 주최로 열린 ‘한국어 / 일본어 / 중국어 / 몽골어 / 터키어 형용사 유형론 워크숍’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함께 토론회 주신 홍재성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아울러, 본고-제목부터 세밀한 내용에 이르기까지-가 더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도 감사사를 드린다.

1. 들어가기

본고는 일본어 어휘 체계 중에서 형용사 범주로 분류된 어휘들의 형태·의미적인 특성을 제시하고, 일본어 형용사와 관련지어 논의에 포함시켜야 할 ‘형용동사’의 형태·통사적 형태와 의미적 속성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어 형용사의 외연과 내포의 형세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한국어 문법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수용된 형용사 범주의 제반 문제를 연계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서구어 문법의 ‘adjective’라는 용어가 ‘형용사(形容詞)’라는 용어로 번역되고 각 개별 문법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고 있는 학술 번역 용어의 역사적 굴절/변화 과정을 반성해 봄으로써, 한국어 문법의 인식론을 재구성하고 체계적이고 정합적인 품사 구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어 문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품사 구분/분류 논쟁이 있어 왔다. 주시경의 독자적인 품사 용어와 가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어문법서는 그 품사의 용어와 그 가르기에 있어서 일본어학에서 정립된, 서구어 문법용어의 번역 용어에 상당 부분 빚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형용사’와 ‘동사(動詞)’란 용어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각각 ‘adjective’와 ‘verb’의 번역에 해당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원어의 시니피에(signifié)와 번역용어의 시니피에 간에 그 간격이 벌어지게 되었다. 번역어의 사용이 자체적으로 일상화되고 원어와의 관계가 차단되면 될수록,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관계가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그 내포와 외연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verb’가 ‘동사’로 번역되어 사용됨으로써 ‘verb’ 그 자체에는 없던 ‘움직임(動)’이라는 뜻이 부각되고, ‘서술(predication)’의 의미가 희석되는 양상은 그러한 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형용사’라는 용어에도 이러한 역사적 굴절 과정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문법에서 형용사란 용어가 적용되는 양태가 그 모태가 되고 있는 일본어의 형용사 범주의 어떤 면을 계승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 이질화되었는가를 밝혀 보는 것은 일본어 형용사뿐만 아니라 한국어 형용사 범주의 성격 규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 입장과 목표 아래에서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한다. 2장에서는 일본어 문법에서 형용사 범주를 둘러싸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일본어 형용사의 어휘적 분포 양상을 계량적으로 제시하고, 형용사의 활용 양상과 단어형성의 측면에서의 형태적 특성 몇 가지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형용사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소위 ‘형용동사(形容動詞)’라는 어휘범주의 형태·통사적인 특성과 그 분포를 계량적으로 제시하고 이 부분에서 일본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착종(錯綜) 현상과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 일본어 문법에서 형용동사라는 범주 설정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한국어 문법에서 일본어 형용동사에 대응되는 어휘요소에 대한 언어학적 또는 사전적 처리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2. 형용사 범주

일본어 形容詞(けいようじ) 범주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서구어 문법에서는 ‘adjective’가 어떻게 정의되고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서구문법에서 ‘adjective’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제시해 본다. 편의상 그리고 지면 관계상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거나 내용을 요약해 제시하기로 한다.

○ Larousse,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La grammaire traditionnelle définit l’adjectif comme le mot qui est joint au nom pour exprimer la qualité de l’objet ou de l’être, ou de la notion désignée par ce nom (*adjectif qualificatif*), ou bien pour permettre à ce nom d’être actualisé dans une phrase (*adjectif déterminatif*). (…)

En linguistique structurale, l’*adjectif* est un morphème défini à la fois par certains types d’environnements, comme la phrase attributive (*Pierre est heureux*) et le syntagme nominal (*Le malheureux enfant*), et par son caractère non nécessaire à la constitution du syntagme nominal (on dit que l’adjectif dans le syntagme nominal est une expansion ou qu’il est introduit par une épithétisation). La linguistique structurale distingue des classes d’adjectifs selon la possibilité qu’ils ont ou non de recevoir des degrés de comparaison (*plus grand*, mais *aîné* ne peut subir une indication de degré), selon qu’ils sont des formes racines ou des formes dérivées (*fort* s’oppose à *metallique*, la syntaxe n’étant pas la même, puisque certains adjectifs dérivés ne peuvent être attributs; *solaire* ne peut être attribut: *un système solaire*), selon qu’ils sont épithètes des seuls noms animés ou de l’ensemble des noms (*pensif* s’oppose à *grand*; selon la nature sémantique de la propriété qu’ils dénotent (adjectifs de couleur, de dimension, etc.).”

○ 三省堂, 『言語學大辭典』

요약: nomen substantivum(실체명사)과 nomen adjectivum(속성명사)의 구분으로 인해 인 구어의 형용사는 명사의 큰 범주 속에 들어간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와 반대로 일본어는 형용사 가 동사 범주와 함께 서술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용언(用言)의 상위범주로 묶인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 또한 일본어의 형용사에 대한 간단한 형태, 의미적 특성을 소개하고, 일본어에는 형 용동사가 왜 필요하고, 한국어에는 형용동사가 왜 없는가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위의 삼성당 『언어학대사전』에 언급된 것을 일본학계에서 대부분 받아들이는 정설로 가정하고 그러한 기술과 인식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일본어에서 형용 사 범주가 동사 범주와 한데 묶여 용언(用言)이라는 상위범주로 통합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형태·통

사적으로 그 차별성과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어에서 먼저 동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는 서술적(predicative) 용법으로 사용될 때나 부가적/수식적(epithetic / attributive) 용법으로 사용될 때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¹⁾ 소위 종지형이 연체형과 동형을 유지한다.

- (1) a. ご飯を食べる子供 (밥을 먹는 아이)
 b. その子供がご飯を食べる° (그 아이가 밥을 먹는다.)
- (2) a. 寒い天氣 (추운 날씨)
 赤い花 (붉은 꽃)
 b. 今日は天氣が寒い° (오늘은 날씨가 춥다.)
 この花は赤い° (이 꽃은 붉다.)

반면, 동사와 형용사를 별개의 범주로 구별하게 하는 차별성은 그 활용어미의 양상이 다르다는 데에 있다. 동사는 형태적으로 ‘-u/ru’ 형으로 끝나는 종지형을 사전형으로 삼고 있는 데 비해, 형용사는 형태적으로 ‘-i’ 형으로 끝나는 종지형을 사전형으로 삼고 있다. 그 각각의 활용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3) 동사의 기본 활용형

동사의 부류	기본형 (사전형)	연체형	연용형	미연형	조건형	원망형	명령형	te-형
Group 1	書く	書く	書きます	書かない	書けば	書こう	書け	書いて
Group 2	見る	見る	見ます	見ない	見れば	見よう	見ろ	見て
Group 3 (Irregular)	する	する	します	しない	すれば	しよう	しろ	して
	来る	くる	きます	こない	くれば	こよう	こい	きて

(4) 형용사의 기본 활용형

형용사의 부류	기본형(사전형)	연체형	미연형	조건형	te-형
일반형용사	大きい	大きい	大きくない	大きければ	大きくて
불규칙형용사	いい	いい	よくない	よければ	よくて

1) 여기서 하나 첨가할 것은 일본어 イ形容詞는 대개 수식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으로 두루 쓰이나, 이론적으로는 그 어느 하나의 용법만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어의 ‘진정한 / *진정하다’와 마찬가지로 현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문법서에서 이러한 분류가 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아직 그러한 시도를 찾지는 못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련된 예를 하나만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i) 人々が多い。
 (ii) *多い人々, cf. 多くの人々

이처럼, 일본어 문법에서 형용사 범주를 따로 설정하는 근거는 형용사라는 범주에 속하는 어휘들의 의미적 성격과는 일차적으로 직접적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서구문법에서 형용사는 주로 ‘상태(state), 성질(quality), 속성(property)’ 등을 나타내는 어휘범주로 의미적 기준을 근거로 규정되는 경향도 없지 않으나, 그것을 그대로 일본어 어휘에 적용한 것이 아니다.²⁾ 물론 일본어 형용사 범주에 속하는 어휘들이 의미 속성상 주로 ‘상태’나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어의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어미의 활용양상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하여 동사라는 범주와 구분되는 어휘범주를 규정하기 위해 할당된 번역 용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형태적 특성을 보이는 일본어 형용사는 어원적으로는 일본어 토박이말이 한자에서 유래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 눈에 띄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의 ‘형용사/그림씨’ 중에서 단일어간으로 되어 있는 것, 즉 ‘단순형의 형용사’ 대부분이 한국어 토박이말이라는 점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어의 기존 형용사 범주는 일본어와는 달리 동사와 활용양상이 동일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³⁾

- (5) a. 寒い, 赤い, おもしろい, ...
- b. 難しい, うれしい, ...
- (6) a. 길다, 짧다, 높다, 낮다, 깊다, 얕다 ...⁴⁾
- b. 춥다, 덥다, 좋다, 싫다, 밍다, 부럽다 ...

획일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형태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한국어 형용사 중에서 ‘주관적인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어휘들이 대개 어간 종성이 ‘-ㅁ-’으로 끝나듯이, 일본어 형용사의 어간이 ‘-し-’로 끝나는 것들은 상당수가 ‘주관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⁵⁾⁶⁾

2) 이 부분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한 심사자의 의견이 있었다. 지적에 감사를 표한다. 여기서 서구의 회랍/라틴 전통문법 이래 형용사를 의미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이 형태론적 특성을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명사와의 성·수·격 일치 현상 등을 근거로 명사의 하위범주로 분류되고, 그 의미적 차원에서 실사와 구별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서술로 읽혀졌으면 좋겠다.

3) 한국어 문법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 방식의 차이점은 {-는다}와 결합하느냐 {-다}와 결합하느냐 하는 기준 하나로만 드러난다. 나머지 명령형과 청유형으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의미적 차원의 문제이지 형태적 기준이 못 된다(목정수(2003) 참조). 이러한 입장이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온 ‘동사’와 ‘형용사’의 어휘적 차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오해되는는 안 될 것이다. 다만 형태적 기준으로 하면, ‘동사’와 ‘형용사’는 하나의 범주로 통합되었어야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용언’으로 묶이고 있지 않은가!

4) 한 심사자는 기존의 형용사-본고에서 ‘기술/상태동사’나 ‘주관/심리동사’로 재분류하자고 주장한 것 또는 목정수(2006a, 2008예정)에서 형용사의 연속체 구성의 시각에서 ‘동사성 형용사’로 분류한 것이다-가 부사 파생의 양상에서 볼 때는 더 일관되게 형용사라고 불리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했다. ‘깊-’→‘깊이’, ‘높-’→‘높이’, ‘멀다’→‘멀리’ 등이 그렇다. 당연히 이 점 인정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명사성 형용사’로 명명하고자 한 소위 어근(명사)들이 부사 파생이 안 된다고 한 지적은 반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요소들의 부사 파생이 접사 ‘-이/히’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깨끗’→‘깨끗이 닦다’, ‘조용’→‘조용히 높다’, ‘긴급’→‘긴급히 보내다’ 등등.

5) 일본어 문법에서는 이러한 형용사를 ‘情意性形容詞’라 불리 ‘情態性形容詞’와 구분하기도 한다(森山卓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어 형용사는 그 숫자가 제한된 폐쇄부류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에서 나온 『에센스 일한사전』(이하 ESC사전)의 표제어를 분석해 본 결과, 일본어 형용사는 총 $[776+45+35=856]$ 개로 제한되어 있다. 이들 중 고형의 ‘ク’ 형이 45개, ‘シク’ 형이 35개이고, 현대의 일반형이 776개임을 알 수 있다. 이 776개의 형용사는 공통적으로 ‘イ’ 형을 기본형으로 해서 앞의 (4)의 표와 같이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 형용사들은 $[N+이형용사]$ 의 합성형용사나 $[동사의 미연형+ない]$ 형의 부정형용사를 만드는 단어형성(word formation) 기제에 의해 만들어진 합성형용사에 의해 그 수가 다소 늘어날 수는 있으나, 새로운 형용사가 만들어질 수 없는 폐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일본어에서 소위 새로운 개념의 형용사적 어휘는 어떻게 채워지는가? 이 문제는 곧 바로 일본어의 소위 형용동사(形容動詞)라는 어휘 범주와 연관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일본어 문법에서 형용동사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살펴보고, 형용동사를 서구문법의 ‘adjective’ 또는 ‘nomen adjectivum’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따져보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왜 형용사라는 용어 대신에 다소 어색한 ‘형용동사’라는 용어를 범주명으로 삼았는지를 구명해 보도록 하겠다.

3. 形容動詞(けいようどうし) 또는 ナ形容詞

앞장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일본어 형용사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다. 이形容詞는 폐쇄집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합성형용사의 몇몇 조어력에 의존하는 것을 제외하면, 어휘적으로 확장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일본어에서 이러한 개념적 어휘 확장은 소위 形容動詞 또는 ナ形容詞에 의해 이루어진다. 대다수의 한자어 유래의 어휘-元氣(healthy), 端正, 正確, 確實, 等等-나 소수의 고유 어휘-しずか(quiet), すき, いや, 等等-나, 특히 외래어에서 차용되는 형용사 어휘는 형용동사로 편입된다. 일본어에서 형용동사는 거의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수용력이 뛰어난 개방부류로서 엄청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어휘부류이다. 이는 한국어에서 외래어의 형용사나 상태 묘사의 명사가 ‘하다’를 통해서 형용사로 편입되는 현상과 동일하다.

- (7) a. セクシーだ: 섹시하다
 b. ナチュラルだ: 내추럴하다
 c. 元氣だ: 건강하다

郎(1999:42) 참조). 한국어 문법에서는 ‘심리형용사’, ‘심리동사’, ‘주관동사’ 등으로 불린다(Martin(1992), 목정수(2003:423-424) 참조).

6) 국어사에서 이야기되는 {슌다}와 {슬프다}의 파생 관계와 {슌다}를 제치고 {슬퍼하다}의 파생동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이러한 {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을 구하기에 앞서, 일본어의 ‘형용동사’는 동사나 형용사처럼 활용한다고 보고 정한 명칭인데,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그 활용 양상을 간단히 살펴보자.

일본어 형용동사의 활용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형용동사와 결합할 수 있는 요소는 ‘ㄷ(da), ㄴ(na), ㄴ(ni), ㄴ(no)’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은 조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로서 일반명사와 결합하는 구조와 동일하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형용동사의 경우에 위 네 가지 조사 이외의 다른 조사들과의 결합이 제약된다는 것과 일반명사는 ‘ㄴ’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8) 學生が, 學生を, 學生も, 學生は, 學生に, 學生の, 學生から, 學生だ, *學生な ...

(9) *有名が, *有名を, ?有名も, ?有名は, 有名に, ?有名の, *有名から, 有名だ, 有名な ...

따라서 형용동사의 활용양상은 형태적인 기준에 의하면 엄격한 의미의 활용이라고 보기 힘들고 명사의 제한된 곡용 양상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형용동사가 영어로는 ‘adjectival noun’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그 의미적 속성을 떠나 형태적으로는 명사와 더 유사한 것으로 일본어 화자가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용동사의 활용이라고 말하고 형용동사를 형용사와 더불어 용언의 하위부류로 보는 것은 언어학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언어학적 용어를 다시 사용한다면, 일본어 형용동사는 동사 또는 용언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명사 또는 체언에 가까운 어휘 범주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굳이 ‘형용동사’라는 이상한 용어를 쓰게 된 것일까?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이미 형용사라는 범주로 묶인 어휘들과 의미적으로 공통된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여기서 일본어 형용사는 의미를 떠나 활용양상을 보고 동사와 구분하기 위해 부여된 범주명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과 ‘**형용동사+ㄷ**’를 중심으로 **동사나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수식적 용법보다는 서술적 용법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동사처럼 서술적으로도 쓰이고, 형용사처럼 실체보다는 속성이나 성질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둘 다를 아우르기 위해 ‘형용동사’라는 용어를 만들어냈고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⁸⁾ 그래도 그 형용동사를 서구어로 가리키기 위해서는 ‘adjectival verb’라고 하지 못하고 ‘adjectival noun’ 또

7) 동사성 명사가 기능동사 ‘하다’를 통해서 행위동사를 구성하는 현상과 평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위동사 ‘협력하다’의 ‘협력’은 ‘명사’로 기술/상대동사 ‘유명하다’의 ‘유명’은 ‘(명사성) 형용사’로 규정하려는 근거에 대해서는 각주 12)를 참조하기 바란다.

8) 형용동사는 문법학자 하시모토신키치(橋本眞吉)가 붙인 것이라는 설—이는 강인선 교수(성공회대)에 따른 것임—도 있고, 형용동사라는 명칭을 처음 쓴 사람은 大槻文彦(おおつきふみひこ)이라는 설—이는 권선화 선생(인하대)의 지적에 따른 것임—도 있다. 두 분 선생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무튼, ‘형용동사’란 용어는 일본어의 형용사가 영어의 adjective의 번역어로 쓰이는 것과 혼동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한 것이고, 현재와 같은 의미로 ‘형용동사’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芳賀矢一(はがやいち)이라고 한다(『中等教科明治文典』(1904) 참조). 현실적으로, 일본어 현대문법, 언어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형용동사’라는 용어를 잘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외국어 학습서에서는 사용되고 있다.

는 ‘na-type adjective’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 갈등구조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EDR사전, Seiich & Michio(1986, 1995)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품사 단위로서의 형용동사는 ‘しずかだ’가 아니라 ‘しずか’인 것이다.

한편, 기존 (한)국어 사전의 표제어 선정과 제시 방식을 둘러싼 거시구조에 대해 호되게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일본어 사전 베끼기의 문제를 빼놓지 않는다. 그 중에서 특히 일본어 형용동사가 전통적으로 명사라는 품사명으로 올려져 있는 것을 그대로 베껴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잘못된 명사가 사전에 수록되었다는 점이 많이 지적된 바 있다(김슬옹(1999) 참조). 우리는 이러한 비판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 왜 일본어에서는 이러한 명사 같지도 않은 것을 명사 또는 형용동사라는 독립된 표제어로 사전에 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취해 보기로 한다. 일본어에서 이러한 표제어는 독자적인 어형을 유지하고 ‘ナ, ニ, ヲ’라고 하는 조사가 일률적으로 / 규칙적으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조사와의 결합형을 다 표제어로 올리는 것은 너무나 많은 잉여성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형용동사를 표제어로 삼은 까닭은 그들의 공용 또는 (전통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활용하는 모습은 문법에서 설명해 주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學生が’, ‘學生は’, ‘學生と’ 등을 하나의 어휘 단위로 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有名だ’, ‘静かな’, ‘元氣に’ 등을 하나의 단어로 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하고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有名}가 ‘有名だ’, ‘有名に’, ‘有名な’로 규칙적으로 활용(?)하기⁹⁾ 때문에 대표형으로 {有名だ}를 표제어로 삼을 수도 있지만, 이는 너무나 잉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또한 {有名}는 독자적으로 단어형성에 관여하기도 한다. ‘有名ブランド’, ‘有名名人’ 등의 어휘를 보면 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한국어에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도 {유명}이라는 어휘가 소위 격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파생접사 ‘-하다’와 결합하여 그 활용형으로 쓰인다 하여, {유명}을 명사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유명하다’의 꼴을 표제어로 삼았어야 한다는 비판은 일면 타당한 점도 있지만,¹⁰⁾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국어에서도 {유명}이란 어휘가 독자적으로 통사적인 단위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유명을 한가?, 유명은 하지만, 유명도 하구나’처럼 소위 보조사에 의해 분리가 되는 것으로 보아, 독자적인 단위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사전에서 이러한 성격의 어휘 단위를 독립된 표제어로 규정한 것이 일본어 사전을 무작정 베껴오는 과정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단순히 단죄 / 치부하는 것은 충분한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유명}이란 어휘요소를 어떤 품사의 범주로 묶어줄 것이냐에 있다고 본다. 분명 일반 명사와는 다른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히 명사라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형태·통사적 행태를 보면, 인구의 ‘adjective’가 보이는 행태와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 있

9) 이를 활용이라 하는 것이 정확한 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전통적으로 그렇게 보아온 것을 존중하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0)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은 ‘형용사adjective’ 또는 이것이 너무 과격하거나 국어학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본다면 ‘형용사성 명사’ 내지는 ‘명사성 형용사’라는 범주로 묶어서 기술하는 것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¹¹⁾ 국어학의 틀에서나 최근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종전자사전에서 ‘어근’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묶으려는 어휘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특성을 공유한다.¹²⁾ 문제는 ‘어근’이라는 용어와 ‘형용사’라는 용어의 선택을 둘러싼 갈등구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어휘요소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으려는 욕망의 기층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일본어의 형용동사의 기본 활용양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ナ, ニ, ヲ*’의 세 가지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다른 품사와의 교차성으로 인해 몇 가지로 하위분류될 수 있다. 최근에 발간된 『日本語彙大系』에 제시된 품사의 구분에서는 ‘형용동사’의 목록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형용사 목록만 921개 제시되어 있는데, 앞서 [ESC사전]의 형용사 목록과 비교해 보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ESC사전]에 수록된 형용동사의 목록이다. [ESC사전]에 제시된 품사 패턴에 따라, 형용동사로 분류된 어휘들의 분포 상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품사와의 교차 관계에 따라 복잡하지만, 전형적인 형용동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약 1000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11) 한 심사자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통해, ‘유명’ 같은 어휘 단위를 ‘명사성 형용사’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본고의 주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어의 형용동사를 바로 한국어의 ‘-하다’ 파생 형용사와 연결시키는 부분에도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일본어의 형용동사는 일종의 조사에 의한 곡용적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한국어는 아무런 조사의 첨가 없이 서구어와 같은 체언 수식어로서 기능하는 사례들이 관찰될 뿐이다. 오히려 ‘-하다’ 파생어들의 활용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한국어 동사 가운데도 ‘-하다’ 파생어가 많은데 그것들과의 차별성을 명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물론 저자는 체언 수식을 형용사의 증거로 삼고 싶겠지만 ‘-하다’ 파생 동사의 여기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없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몇 가지 떠올릴 수 있는 예를 생각해본다면, ‘합동’, ‘협력’, ‘연합’ 등 그리 어렵지 않게 예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단순히 한국어의 형용사를 명사-형용사 유형으로 넣기에는 그런 체계에서도 불명확한 부분이 남는 것이다. 그러한 제편이 바로 한국어의 논리적 일관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속단이 아닌가? ‘형용사+하다’가 마치 서구어의 ‘계사+형용사’, 예컨대 영어의 ‘be+형용사’로 쉽게 대비시킬 수 있다는 사고는 지나치게 서구어 위주의 사고가 아닐까?”

필자가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꼼꼼한 지적에 감사를 표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합동’, ‘협력’, ‘연합’과 결합한 ‘-하다’ 구성 자체는 행위동사에 속하는 것이고, ‘합동’, ‘협력’, ‘연합’ 자체는 동사적 성격을 띠고 있음과 ‘협력 단체’에서처럼 체언 수식 용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동사나 형용사가 아닌 명사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자율적 단위로 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는 형태·통사적인 특성 때문이다. 반면에 ‘기술동사’ 혹은 ‘상태동사’에 속하는 ‘유명하다’의 ‘유명’은 그것이 명사적 차원에 놓이긴 하나, 하나의 논항으로서 명사 성분으로 쓰일 수 없는 제약과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수식어로서나 서술어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명사성 형용사’로 볼 수 있는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유명하다’의 ‘하다’를 일종의 계사(copula), 즉 영어의 ‘be’로 기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유명+하다’의 구성을 ‘be+famous’의 구성과 대응시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이 먼저 서구어 위주로 사고해서 얻은 나중 결과는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2) 이러한 성격의 어휘들을 ‘어근’으로 보는 것이 세종사전에서 취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휘 단위의 품사를 주는 문체에 있어서 ‘어근’이라는 범주는 적절하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하다(목정수(2003, 2006, 2007)를 참조할 것).

(10) 형용동사의 분포와 수

유 형	특 성	개 수
@@형동1자	[名][ダナ][스自]	2
@@형동1타	[名][ダナ][스他]	3
@@형동2자	[名][ダナ][스自]	1
@@부형동1	[名][副][ダナ]	1
@부형동1	[副][ダナ]	8
@부형동2	[副][ダナ]	33
@부형동3	[副][トタル]	8
@형동1	[ダナ]	810
@형동2	[ダナ]	168
@형동3	[トタル]	372
@형동4	[ナリ]	30
@형동1자	[ダナ][스自]	1
@형동3자	[トタル][스自]	2
@@형동1	[名][ダナ]	459
@@형동2	[名][ダナ]	115
@@형동3	[名][トタル]	5
@@형동4	[名][ナリ]	4
@@1형동3	[名][トタル]	1

대표적인 몇 가지의 예를 몇몇 유형별로 정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유형	きれいな	きれいに	きれいだ	*きれいの
	まじめな	まじめに	まじめだ	*まじめの
	有名な	有名に	有名だ	*有名の
	誠実な	誠実に	誠実だ	*誠実の
B 유형	わずかな	わずかに	わずかだ	わずかの
	いろいろな	いろいろ / *いろいろに	いろいろだ	いろいろの
	別な	別に	別だ	別の

B 유형	高度な	高度に	*高度だ	高度の
	同様な	同様に	同様だ	同様の
C 유형	大きな(←大きい)	*	*	*
	小さな(←小さい)	*	*	*
	*	*	*	ほんの
	*	*	*	この / その / あの / どの

일본어의 형용동사는 형용사와는 달리, 그 의미 속성이 ‘adjective’에 가깝고, 또한 그러한 의미 단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형용동사의 기제를 이용하여 일본어휘 체계 속으로 편입시켜야 하는 상당히 강력한 장치임을 알 수 있다.¹³⁾

이러한 일본어 형용동사의 분포에 대한 계량적인 수치를 염두에 두고, 한국어의 상황으로 되돌아와 보자.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어 형용사와 일본어 형용사를 비교해 보면, 한국어 형용사는 일본어 形容詞보다 바로 이러한 形容動詞에 대응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의 시각에서 해석해 보면, 한국어 순수 형용사 ‘좋다, 싫다, 답다, 춥다, 길다, 짧다...’와 같이 단일어간으로 이루어진 단순형 형용사의 숫자가 일본어 형용사처럼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추론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한국어 형용사는 [X+하다] 형식으로 이루어진 복합구성의 형용사라는 점을 예상케 한다. 실제로 한국어 형용사의 분포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일본어 형용동사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형용사로 바로 규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다시 이러한 어휘들은 어떤 품사에 속하게 되는가? 논의가 순환되는 듯하지 않은가? 이와 관련된 심층적인 이유는 바로 일본어와 한국어 문법에서 무엇을 형용사로 규정했는가 그리고 왜 그랬던가라는 질문과 연계해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일본어의 형용동사에 대응되는 어휘를 형태·통사적 행태를 고려하여 ‘형용사’로 규정하려면, 그 전에 형용사로 부르던 것을 형태론적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동사’의 차원에서 하위분류하여 ‘기술동사/상태동사’나 ‘주관동사/심리동사’로 인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반 위에서만 전통적으로 {유명}처럼 ‘어근’이라 불리는 어휘 단위가 실제로는 통사론적 단위로 쓰이고 있고, 명사로서 기능한다기보다는 ‘형용사’로서 기능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자체를 개혁하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용어의 계보학과 용어의 지식고고학적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메타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매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13) 현대 문어에서 정중체형을 만들 때, 동사는 ‘ます’를 명사(형용동사도)는 ‘です’를 붙이고, 형용사도 ‘です’가 되는데, 이것은 19세기 말에 시작된 것이라 한다(강인선 교수(성공회대)의 지적에 따른 것임).

4.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일본어 형용사라는 용어가 어떤 번역의 과정을 겪었는가 하는 점과 그 범주가 어떤 영역의 어휘요소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그 어휘의 계량적인 면과 그 분포양상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형용동사’로 불려온 어휘들이 실은 ‘명사성 형용사’-양보하여 ‘형용사성 명사’-의 범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여러 가지 언어학적 논거를 통해 밝혔다. 따라서 한국어 문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일본어학의 용어를 차용해서 써나가면서 발생된 용어학적 문제를 깊이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용어에 새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혁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였다. 다른 한편, 시니피앙(signifiant)과 시니피에(signifié)의 끊임없는 간섭으로 인하여 그 용어를 둘러싼 논쟁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겠지만, 현행 (한)국어 문법에서 사용되고 있고 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형용사란 용어에 미련을 두지 않고 과감히 혁파하여 새로운 유형의 ‘형용사’-일본어학에서 형용동사라 했던 것을 형용사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형용사라 했던 것을 동사의 하위부류, 즉 주관동사/기술동사로 재편한다는 선에서-를 재정립할 수 있다면, 한국어(문법)의 논리적인 일관성을 찾고 회복하는 데도 인식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를 알타이어족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계통론적인 문제를 떠나, 크게 알타이어족의 기본 특성을 다수 공유한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알타이어족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형용사라는 어휘범주를 보면, 일본어와 한국어는 알타이제어들과 특성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기이하고도 특이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다른 알타이제어-몽골어, 만주어 등등-에서는 형용사가 인구어와 마찬가지로 명사와 성격이 유사해서 ‘명사-형용사’ 유형에 속하지만, 한국어와 일본어의 형용사는 동사적 성격이 강해, ‘동사-형용사’ 유형의 언어로 분류되어 온 것이다(홍재성(1999) 참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용사의 유형론을 명사와 동사와의 관계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어족유형	언어유형	
	명사-형용사 언어	동사-형용사 언어
인구제어	라틴어, 불어, 영어	x
알타이제어	만주어, 몽골어	일본어 한국어

동사(활용)-명사(곡용)-형용사(곡용): 라틴어, 불어, 영어

동사(활용)-형용사(활용)-명사(곡용): 일본어(형용사 활용 다름), 한국어(형용사 활용 같음)

동사(활용)-형용사(곡용)-명사(곡용): 만주어, 몽골어

그러나 이는 ‘명사-형용사’ 유형의 서구어를 기준으로 하되, 형용사라는 용어를 형태가 아닌 의미적 기준에 의해 적용시켜 그 형용사라는 범주가 특별하게 설정된 데에서 말미암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본어에서의 형용동사 범주 설정의 문제에서 보았듯이, 이들 범주가 ‘형용사성 명사’ 또는 ‘명사성 형용사’라는 차원에서 크게 명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기술된다면 또는 기술될 수 있다면, 한국어의 대응 어휘도 ‘형용사성 명사’ 또는 그 자체를 ‘형용사’라는 범주로 삼게 된다면, ‘동사-형용사’ 유형이 아닌 ‘명사-형용사’ 유형의 가까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고, 기존의 단어어간의 원형적인 형용사 ‘춡다, 답다, 밋다, 좋다, 싫다’ 등은 동사의 하위부류로서 ‘주관동사’, ‘심리동사’, ‘기술동사’, ‘상태동사’ 등의 동사(=용언) 범주로 다시 이름지어 어휘 체계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 결과가 품사론이라는 거시구조에도 더 정합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영근. 1983. 『국어문법의 연구 - 그 어제와 오늘 -』. 탑출판사.
- 권선화. 2005. “日本語形容動詞の研究”.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슬옹. 1999.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저놈을 매우 처라』. 다른 우리.
- 김영옥. 1994. “불완전 계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학』 24, pp.87-109.
- 김창섭. 1999.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한자어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국어연구원 연구보고서 1999-1-5.
- 목정수. 2002. “한국어 관형사와 형용사 범주에 대한 연구: 체계적 품사론을 위하여”. 『언어학』 31, pp.71-99.
- 목정수. 2003. 『한국어 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 목정수. 2006a. “A Continuity of Adjectives in Korean: from a prototypical perspective”. 『언어학』 45, pp.87-111.
- 목정수. 2006b. “수상한 수식 구조에 대하여 -부사의 경계에서-”. 『2006년 한국언어학회 겨울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7-25.
- 목정수. 2006c. “한국어 문법 체계에서의 ‘이다’의 정체성 -기능동사 옹호론-”. 『어문연구』 132, pp.55-81.
- 목정수. 2007a. “한국어 조사 {의}의 문법적 지위와 의미 기능에 대하여”. 『국어교육』, pp.437-470.
- 목정수. 2007b. “형태론과 통사론 사이에: 통사론적 단위 설정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7, pp.127-147.
- 목정수. 2008예정. “한국어 명사성 형용사의 설정 문제”
- 박진호. 2004. “한국어 형용사 어휘부의 구조”. 『한국어 / 일본어 / 중국어 / 몽골어 / 터키어 형용사 유형론 워크숍』. 서울대언어연구소 / 세종전자사전개발연구단. pp.4-4.
- 서태룡. 2006. “국어 품사 통용은 이제 그만”. 『이병근선생 퇴임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pp.359-389.
- 시정곤. 2001. “명사성 불구어근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한국어학』 14, pp.205-234. (시정

- 근(2006). 『현대국어 형태론의 탐구』에 재수록)
- 연세대학교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吳美寧. 2004. “韓國語의「漢字語+하다」形容詞と日本語の形容動詞”. 『日本語學研究』第10輯, pp.95-112.
- 홍재성. 1999. “한국어의 구조: 유형론적 특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pp.163-187.
- 홍재성 외. 2001. 2002. 2003.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문화관광부 / 국립국어연구원.
- 河野六郎 외. 1996. 『言語學大辭典 제6권 술어편』.三省堂.
- 森山卓郎. 1999. 『ここからはまる日本語文法』. ひつじ書房.
- 飛田良文、淺田秀子. 1991. 『現代形容詞用法辭典』. 東京堂出版.
- 에센스 일한사전. 민중서림.
- 국제교류기금 일본어국제센터. 1992. 『日本語初級』. 시사영어사.
- Anward, J. 2001. Parts of speech. Haspelmath, M. et al.(eds.).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An International Handbook*. Berlin / New York: Walter de Gruyter.
- Backhouse, A. E. 2004. Inflected and Uninflected Adjectives in Japanese. Dixon & Aikhenvald (eds). *Adjective Classes: A Cross-Linguistic Ty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Bhat, D. N. S. 1999. *The Adjectival Category. Criteria for differentiation and identific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Choe, Hyon Sook. 2005. Some Distributional Differences Between Adjectives and Verbs in Korean: A reply to Yeo (2004). *Language Research* 41(2).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 Croft, W. 1991. *Syntactic Categories and Grammatical Relations*.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ixon, R. M. W. 1977. Where have all the adjectives gone?. *Studies in Language* vol. 1.
- Dixon, R. M. W. 1994. Adjectives. Asher, R. E. et al.(eds.).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Pergamon Press.
- Dixon, R. M. W. and A. Y. Aikhenvald (eds). 2004. *Adjective Classes: A Cross-Linguistic Ty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Dubois, J. et al. 1973.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Librairie Larousse.
- Evans, N. 2000. Word classes in the world's languages. Booij, G. et al.(eds.). *Morphology: An International Handbook on Inflection and Word-Formation*. vol. 1. Berlin / New York: Walter de Gruyter.
- Huddleston, Rodney D. and Geoffrey K.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Min-juo. 2005. The Absence of the Adjective Category in Korean. manuscripts. (webpages.acs.ttu.edu / minjkim)
- King, R. and J.H, Yeon. 2000. *Elementary Korean*. Tuttle.
- King, R. and J.H, Yeon. 2002. *Continuing Korean*. Tuttle.
- Martin, S. E. 1992.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 Rutland. Tokyo: Charles E. Tuttle Co.
- Schachter, P. 1985. Parts-of-speech systems. Shopen, T.(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iichi and Michio. 1986. *A Dictionary of Basic Japanese Grammar* (日本語基本文法辭典). The Japan Times.
- Seiichi and Michio. 1995. *A Dictionary of Intermediate Japanese Grammar* (日本語文法辭典 中級編). The

- Japan Times.
- Shopen, T. 1985.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lause structure*. Cambridge.
- Sohn, Ho-Min. 1999.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ogel, P. and Comrie, B.(eds.) 2000. *Approaches to the typology of word classes*. Berlin: Mouton de Gruyter.
- Yeo, Seungju. 2004. What is it Like Being an Adjective in Korean?. *Language Research* 40(4).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pp.1013-1033.
- Yeo, Seungju. 2005. On the syntactic category adjective in Korean. *Eoneohag* 42. Linguistic Society of Korea. pp.23-40.

목정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90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0-743
E-mail: mjsmok@uos.ac.kr

접수일자: 2008. 10. 21
수정일자: 2008. 12. 01
계재일자: 2008. 12. 04